

들어가며: 말라기서의 마지막 논쟁입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그 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무익하다(3:14). 왜냐하면 악인이 오히려 잘되고 번성하기 때문이다(3:15)”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강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그런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며(3:16), ‘정하신 날’에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여(3:17,18) 구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에는 부조리가 참 많습니다. 정의가 속히 시행되지 않으며 불의가 가득해 보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시대의 불의는 무엇입니까? 혹은 혹시 개인적으로 불의한 일을 묵도하고 있거나 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1. 치료하는 날개 (1-3)

1.1. (관찰) 그 날에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신 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 4:1 ()자와 ()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 4:3 또 너희가 ()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

1.2 (관찰) 반대로 의인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 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가 떠올라서 ()을 비추리니

1.3. (나눔1) ‘광선’이라고 단어는 ‘날개’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해(태양)’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인데, ‘그 날’에 ‘날개달린 태양 같으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보호하시어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갈수록 신앙을 지키며 순결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의인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종말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나누어 봅시다.

1.4. (나눔2) ‘악인들은 발밑 재와 같게 된다’는 표현은 ‘의인들의 온전하고 완전한 최종적 승리’를 가리킵니다. 지금 당장은 추수 때가 아니어서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이 의인들과 함께 있지만, 결국 추수 때가 되면 구분하여 알곡은 곳간 안에 가라지는 불에 태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정의를 논하는 중요한 전제라면, ‘들어가며’에서 나누었던 우리 시대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서 우리 어떤 태도와 관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2. 엘리야의 임무

2.1. (관찰) 4:4-6절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단락으로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들을 향한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낸다고 하시며, 또 그를 통해 무엇을 먼저 행하시겠다고 하십니까?

- 4:5 보라 ()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 4: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

2.2. (나눔3) 6절은 엘리야가 미리 와서 회개의 메시지로 ‘서로를 향한 사랑, 평화를 회복케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악인들의 회개를 기다리며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사랑의 행동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어떤 사랑의 행동을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